

행정 최일선 동장들과 전주 대변혁 비전 공유

우범기 전주시장, 덕진구 동장 16명과 각 동별 주요사업·행사 공유 등 동장 회의 가져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덕진구 16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을 대상으로 시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각 동별 주요 사업을 청취하는 동장 회의를 가졌다.

우 시장은 앞서 지난 4월에는 완산구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과 전주 발전을 위해 시청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한 바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덕진구 16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을 대상으로 시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각 동별 주요 사업을 청취하는 동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동장들은 주민생활개선 개선을 위해 각 동별로 긴급히 준비가 필요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 현안 사업에 대한 동 주민 동향과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한 요청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치매안심도시 구현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등 시청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 부서 장들이 동장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치매안심도시 구현

을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치매의 진단과 치료·돌봄·요양 등을 돕는 치매 환자 및 가족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다.

"전주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의 경우 버스 운행에 철도 개념을 도입한 시스템으로, 기존 도로에 버스의 독립 차로를 설치해 통행속도와 정시성, 무정차, 승수 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체계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2026년도까지 호남제일문 사거리부터 한백교 교차로까지 기린대로 10.6km구간에 버스중앙전용차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동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만큼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줄길 바란다"면서 "전주의 대변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때인 만큼, 앞으로도 달라질 전주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23일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회장 김효춘)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복지·노인일자리 협력 방안 모색

전주시의회,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23일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회장 김효춘)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 시니어클럽의 안정적 운영과 회원기관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효춘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장은 "전주시의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으나 아직

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의 안정적인 발전적 운영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밝은 노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43명 위원 위촉·역량 강화 위한 특강 진행

전주시가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시청 강당에서 일반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건설교통의 4개 분과와 35개 동 위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각 동별 협의회 위원,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

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예산학교에서 신규위원과 연인 위원 등 총 4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2년의 위원 임기 동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제안사업 검토가 이뤄지도록 활발한 활동에 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산학교에서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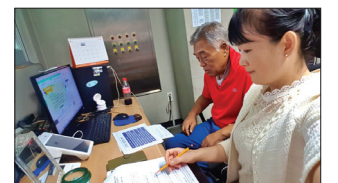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6일부터 2주동안 전주시 누리집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전복투표자지도 지역맞춤형 주민제안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접수 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

/김옥기기자

전주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현장 직원 친절 교육

전주시 공영주차장 현장 직원이 일대일 맞춤형 친절 교육을 받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공영주차장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 현장 직원이 일대일 맞춤형 친절 교육을 받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도착해 마주하는 첫 관문이다.

이에 공단은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씨로 이용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까지 3주간 20개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현장 근로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CS 담당자가 순회하며 직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공단은 이용객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공영주차장 현장 직원들로 하여금 친절할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도록 매년 삼하반기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또 현장 서비스 품질을 모니

터링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삼반기 쌍방향 현장 소통단을 운영했다.

그 결과 개선 의견 총 39개를 수렴하고, 이 중 법적인 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31건을 개선 조치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전주에 도착해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공영주차장 현장 직원들의 태도와 말씨 하나하나가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다"며 "현장 직원들이 항상 친절함 자체로 관광객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덕진구, 주인 없는 옥외 간판 일제 정비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는 영업장 폐업, 이전, 파손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방치된 옥외 간판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인 없는 옥외 간판 정비사업은 덕진구 소재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고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주는 사업이며,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노후화로 인해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해 버려진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건물소유주(관리인)나 영업주 등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 받거나 영업주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덕진구청 건물소유주 동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간판을 대상으로 9월 말경 현장실사를 거쳐 추락 위험도와 미관저해 정도를 확인한 뒤 철거 대상을 확정하여, 10월 말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을 익산시장 소환 조사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것은 맞다"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